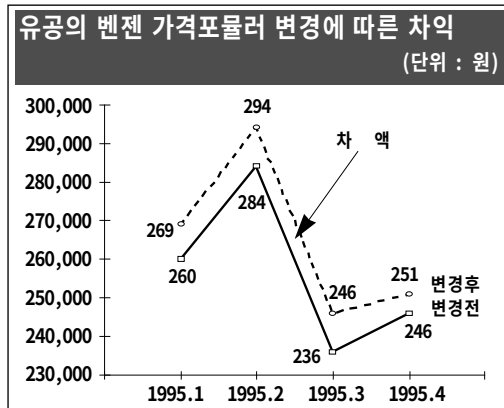


유공, 벤젠 가격포물러 일방변경

1월부터 USCP+12달러로 소급적용 ... 4월 톤당 25만1000원으로 인상

유공이 벤젠가격을 기습인상, 수요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대표 조규향)은 지난 4월10일 거래기업에「벤젠가격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조건 변경」공문을 보내 유공이 공급하고 있는 벤젠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은 자사가 생산·공급하고 있는 벤젠가격을 4월1일부터 톤당 24만6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2.03% 인상키로 결정, 수요기업들에 통보했다.

특히, 유공은 95년 국내외 시장을 고려하여 벤젠가격 포물러를 톤당 USCP+3.03달러에서 USCP+12달러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가격포물러를 95년 1월10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일방 통보, 수요기업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유공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을 보면, 1월분 공급가격이 톤당 26만원에서 26만9000원으로 3.46%, 2월분은 28만4000원에서 29

만4000원으로 3.52%, 3월분은 23만6000원에서 24만6000원으로 4.24% 인상된 것이다.

SM·MA 등을 생산하는 벤젠 수요기업들은 유공이 일방적으로 벤젠가격을 인상한 것도 사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가격포물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1월 공급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공의 가격포물러 변경 및 소급적용에 따라 수요기업들은 1/4분기동안 기업당 많게는 2억~3억원, 적게는 3000만~5000만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유공의 가격인상에 따라 한화에너지·호남정유·고려석유화학 등도 벤젠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벤젠 수요기업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또 벤젠을 대량 사용하는 SM가격 인상이 불가피, PS·ABS 등 폴리스틸렌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벤젠유도품 가격이 일제히 들먹일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5/5/1>